

# 광주시 민간공원 비리 수사 여파...청렴도 꼴찌 추락

광주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변경 이후 불거진 비리·특혜 의혹과 그에 따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던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2단계 오른 2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 2단계 추락한 청렴도 5등급-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광주시는 5등급(종합청렴도)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광주시는 3등급을 받았으나 2단계 떨어졌다.

광주시 외부청렴도는 전년도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의 이번 청렴도 결과는 '시청 공무원도, 시청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도 모두 광주시 청렴도에 낙제점을 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본 시민, 내부청렴도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1단계 밀려난 3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시청에서 근무해왔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간부공무원부터 새내기공무원까지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연중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년도와 같은 3등급, 광주도시공사사는 전년도보다 1단계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5개 자치구 중에선 동구가 청렴

권익위 조사 2단계 하락 5등급 시민·내부 공직자 모두 낙제점 전남도는 2계단 올라 상위권 광양시·영광군 최고 1등급 전남개발공사 공기업중 최고도 2등급을 받았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3등급, 남구는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년도 2계단 오른 3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년도와 같은 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청렴도 2단계 '경중' =전남도 청렴도가 경중 뒤편이었다.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청렴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인 게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지난해(4등급)에 견줘 2단계나 뛰어올랐다.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이 없고 2등급 이상 오른 광역자치단체도 전남·전북·충남(이상 2등급)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평가다.

전남도의 경우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2017년 13위를 기록하다가 등급만 발표했던 지난해에도 4등급을 받는 등 4년째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올해를 '청렴 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취약 분야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렴 생태계 조성에 힘써온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소소한 향음 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관행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건설청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2단계나 올라선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상승을 이끌었고 정책고객 평가 부문도 전년도(3등급)보다 1단계 상승했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며 "올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 생태계가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았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을 받았고 영광군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광양시·영광군의 경우 최근 3년 간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으로도 꼽혔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년도에 이어 2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한전 KP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전력거래소(2등급), 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전KDN·한국인터넷진흥원(3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 어떻게 =권익위의 올해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부청렴도 설문, 내부청렴도 설문, 정책고객(주민 등) 평가설문 합산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기념식이 9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진 경북행정부지사,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재정 전 국회의장,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권노갑·김옥두 전 국회의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세균·박지현·최경환·박선숙 국회의원, 김선숙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를 산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와 이메일, 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3만8956명이었다. 외부청렴도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해당 기관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를 본 시민 15만 8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내부청렴도 조사는 올 6월 30일 현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6만9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정책평가해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주민·학부모 등 정책 관련자 등 모두 1만9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변혁’ 당직 인선하며 창당 속도 안측 “12월 합류설 사실 아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12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변혁)'에 자신이 합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안철수 전 대표가 변화와 혁신 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혁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안 전 의원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 "개론 발차(문 열어놓고 출발) 할 수밖에 없다"며 "(안 전 의원이) 12월 중에는 입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단계 원외 지역위원장, 2단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 9명이 탈당하고 마지막으로 비례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변혁의 신당 창당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당초 변혁은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의원 8명과 안철수계 의원 7명 모두를 신당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안철수계에서 발기인 대회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신당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 뿐인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 전 대표 참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서 제명시키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 때문에 탈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입당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 없는 변혁의 신당 창당이 '바른정당 시즌 2'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변혁 창당준비위원회는 주요 당직 인선에 나서는 등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혁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준위 총괄실무본부장에 윤석대 전 청와대 정부수석실 행정관을 선임했다. 또 창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문헌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맡았다. 대변인으로는 권승주 연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김익환 바른미래당 전 서울 구로구 지역위원장,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이 각각 임명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국민 요구 더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처음 출근하면서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 분야의 국

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며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출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경정 갈등에 대한 생각, 검찰 인사에 대한 전망 등도 질문했으나 "입명받은 후보자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문제는 그(청문회)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듯하다"며 답을 미뤘다.

/연합뉴스

겨울여행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우리가족 해외여행' 편하게 떠나요!

### 동남아

**겨울 특별기**

**캄보디아**

savepack ARPFD1\_ZA1  
캄보디아양코트왓 4일,5일  
599,000원-

수 3~4일, 토 3~4일 (10.11~20.2.28)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현대의 신비 #양코트 유적지

**겨울 특별기**

**나트랑**

savepack AVPF21\_D  
나트랑/달랏 4일,5일,6일  
950,000원-

수 3~4일, 토 3~4일 (19.12.29~20.2.22)  
\*1월18일~23일,27일,2월1일 패킹상이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시니(44스타트) #노소일 #호핑투어

**방콕**

하나팩 AAPF01\_A  
방콕·파타야 5일,6일  
599,000원-

수 3~4일, 토 3~4일 (19.12.29~20.2.22)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태국 맛집 #준족족호텔

**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PF03\_3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499,000원-

목 3~4일, 일 4~5일 (19.12.29~20.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이탈랜드투어 #산악리조트

**하노이**

하나팩 하노이/하롱베이 5일, 6일  
1,050,000원-

목 3~4일, 토 3~4일 (19.12.23~20.2.12)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하롱베이 인피루트 #5성급호텔

### 남태평양/중국/대만

**신규취항**

**괌**

savepack PGPF40\_A  
괌4일 홀리데이인호텔  
840,000원-

목 3~4일, 토 3~4일 (19.12.24~20.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남태평양 파라다이스 #파시어

**대만**

하나팩 ATPF01\_2  
[온선]대만·지우펀·스핀 4일  
681,000원-

목 수, 토 3~4일 '빙기빙상'이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대만온천여행 #101빌딩

**장가계**

savepack CIPF01\_2  
장가계 4일,5일  
799,000원-

목 수, 토 3~4일, 금요일 4~5일 (19.11.26~20.2.28)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천하제일승선 #천문대 #원가계

**캄보디아**

하나팩 ALPF15\_A  
라오스 5일,6일  
1,050,000원-

수 3~4일, 토 4~5일 (20.2.4~20.2.25)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볼루타르 #7리빙

**다낭**

savepack AVPF13\_0  
다낭·호이안 4일  
599,000원-

매일출항 3~4일 '차리'보객 있음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관광객 휴양지 동시베

**세부**

하나팩 APPF01\_A  
세부 5일 일급리조트  
484,000원-

주 2~4회 운항 '빙기빙상'이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핑투어 #인사리사지

**보라카이**

savepack APP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급리조트  
649,000원-

목 3~4일, 일 4~5일 (20.2.13~20.2.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일출투어 #2일사지

**치앙마이**

하나팩 치앙마이/치앙라이 5일, 6일  
1,150,000원-

수 3~4일, 토 4~5일 (20.2.13~20.2.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클라우드투어 #빙기빙상

**하이난**

savepack CIPF83\_N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509,000원-

수 3~4일, 토 4~5일 (20.2.13~20.2.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특급호텔 #노소일 #1일 자유

**상해**

하나팩 CCPF01\_2  
상해·주자강 4일,5일  
329,000원-

수 3~4일, 토 4~5일 (20.2.13~20.2.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상해특기 #상해시가지

**상해/황산**

하나팩 CCPF01\_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4일, 토 4~5일 (20.2.13~20.2.27)  
현지지불>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중국계절풍경 #서호유람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air Price | 안심결제 캠페인 | 단체맞춤여행 인센티브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차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여행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점]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무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성급 이상 2인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선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취항/불편정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보충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